

7

Members









박예나

엄마 하지윤

김소유

엄마 강민희

조예빈

엄마 최보람

김신유

엄마 신아영



독서(Read)하고

- -독서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경제개념과 용어를 이야기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 -금융 문해력향상과 아이들의 금융습관을에대해 생각해보고 만들어 줄 수 있다.

이음독서모임의 활동 계획 Read& Create

미술(Create)하고

-생소하고 어려운 경제개념을 미술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다. -미술작품이 주는 경제적인 효과와 영향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Book it 추천도서



꼬마악어 지갑

진행일정 2024.08.24 하지윤 엄마선생님



알뜰살뜰 저금하는 토끼

진행일정 2024.08.28 강민희 엄마선생님



돈은 어떻게 벌까요?

진행일정 2024. 10. 22 최보람 엄마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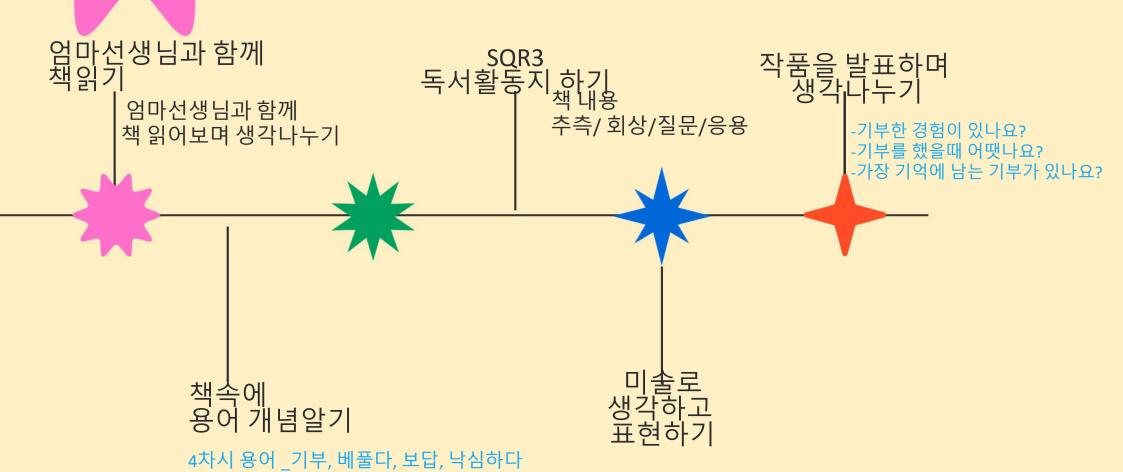


퀼트할머니의 선물

진행일정 2024. 10. 29. 신아영 엄마선생님



활동순서







세상을 바꾼 퀼트할머니의 선물

가난한 사람에게만 퀼트를 나누어 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름다운 퀼트를 만들며 행복한 할머니와

수많은 선물들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더 많은 선물을 바라면서 행복해 하지 않는 왕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 책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 할 것 같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시작이 어렵지 나누다 보면 나누면서 얻어지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며 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서 무엇을 나눌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곰곰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활동하기

9



활동1. 나의 기부한 경험을 적어보고 친구와 나누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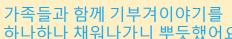
활동2. 바자회에 참가하여 번 돈을 기부했어요.







LUCK SE OUT OUT THE SE OUT O







활동1. 나의 기부 이야기 하트만들기

집에서 가족들과 기부한 경험을 나누고 적어보았어요.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물건을 기부하기도 하고 먹을 것을 기부하기도 했지요. 생각보다 기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빈칸이 남았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 칸을 어떻게 채울지 가족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난주에 유치원에서 전도여행을 갔다왔는데 그곳에 계신 할머니들이 귀엽다며 챙겨주신 용돈을 현지교회에 헌금하고 왔던 경험이 떠올랐어요.



플리마켓에서 판 돈 중에 일부를 마음을 모아 자선모금함에 같이 기부했어요. 처음에는 내 물건을 팔아서 내가 번 돈인데 하면서 돈이 줄어드는 것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자선모금함에 넣는 돈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쓰인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좋았어요.

함께 생각을 나누어요!



기부할때 마음이 어때?



"내 걸 나눌 수 있어서 기뻐"



"뿌듯해"

김신유



박예나

너희도 퀼트할머니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부를 한다면 ?



^{박예나} "내 장난감을 나눌꺼야"



조예빈 "내가 만든 팔찌를 나눠주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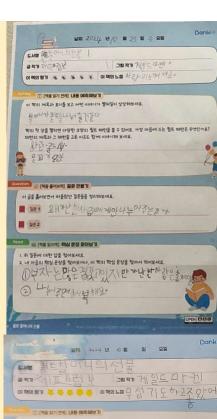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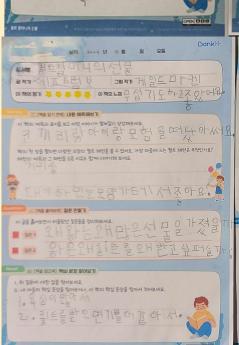
^{김신유} "**내 돈을 기부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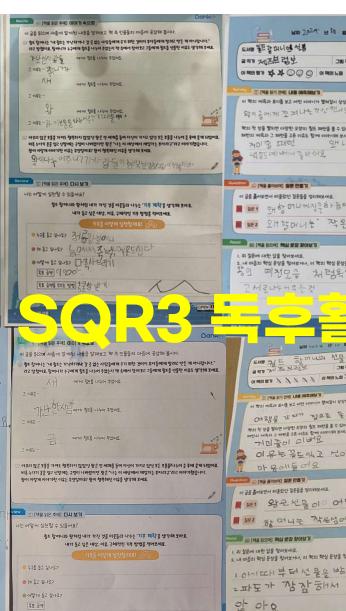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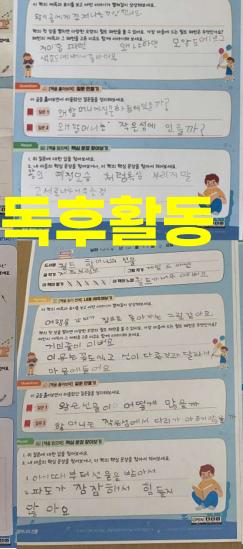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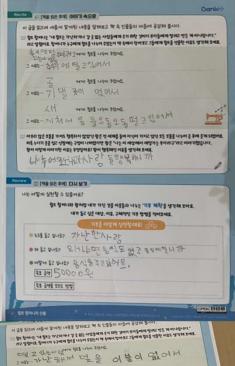


목표 금액을 모으는 방법



= was 2,024 to to #29 # 28

그림리게임드마엔



금에게 밝혀 나는데 취업이고

April 355 Liter 2000.

그에 사내나 너무를 위사요.

0 47\$ 82 8483 F QI ON H N

年3억 3,000Q1

· 의 된 학생 · 아용이 통이서

* 아마네 도 보다 보는 그 프리고 보어요

D [대통 왕은 후에] 다시보기

그때-따딱한 곳에서 자는 공에게부 없어요

쾰도 할머니와 당처럼 내가 가진 것을 이웃들라 나누는 '기부 계획'을 생각해 보아요.

내가 돕고 싶은 대상, 이유, 구체적인 기부 방법을 적어보세요.

報 398 922 8日 世山山三川州 名を作かれらられの日





3회차 선생님 예빈엄마(최보람)

첫시간에 책을 읽고 난 후 아이에게 질문했을때 책에서 말하는 요점을 잘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이야기속에서 핵심문장을 스스로 찾고 이야기속에서 왜 작가가 그렇게 했을까?라며 궁금한 점들이 많아졌어요.

또한, 아이에게 설명하기 어려웠던 경제 용어를 이야기를 통해 쉽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어 좋았고,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독후활동을 통해 저축, 기부, 경제활동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활동을 마무리 하며

4회차 선생님 신유엄마(신아영)

평소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기는 하지만

'경제'와 관련된 책을 읽어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을 읽고 활동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고민 했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아이들에게 경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육해도 된다는 저의 관점이 바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1회차 선생님 예나엄마(하지윤)

친구들과 함께 '경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함께 활동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뱅크잇 북잇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회차가 진행될 수록 아이들이 처음에는 생소하게 받아들였던 경제적 용어나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일상 속에서 지나쳤던 것들도 다시 보게 하는 눈도 길러주었습니다.

2회차 선생님 소유엄마(강민희)

엄마들의 소감)



아이와 함께 금융책을 읽고 실습과 활동까지 이어지면서 돈의 개념을 쉽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금융 교육이 어린 나이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아이가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